김윤기 •김승미 선교사의
좋은기별 from Senegal
67호 | 2023년 10월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으니라" (잠 25:25)

지금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의 손이 없지만 그분의 일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손이 있다.
지금 이 세상에는 그분의 발이 없지만 사람들을 그분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의 발이 있다.
지금 이 세상에는 그분의 혀가 없지만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혀가 있다.
지금 이 세상에는 그분의 몸이 없지만 사람들을 그분께 이끌 수 있는 우리의 몸이 있다
-윌리엄 보든(20세기 초 중국 선교사)

하나님은 능력이 충분하심에도 연약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의 **손, 발, 혀 그리고 몸**이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겠냐마는 여전히 하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시기에 그렇게 쓰임받는 일 자체가 감격일 수 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분들이 세네갈 선교에 함께 해 주시기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보든의 글은 비단 선교사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글 입니다. 각자 부름받은 삶의 현장에서 그분의 손으로, 발로, 혀로, 몸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동역자분들께 오직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풍성히 넘치길 소망하며 좋은 기별 67번째를 나눕니다.

현지 목회자 IBG 신학연수

세네갈에는 3년 과정의 **신학교**가 띠에스라는 도시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큰 교단(하나님의 성회)에서 운영하는 직영 신학교가 있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신학교육이 많이 필요한 곳이 바로 아프리카 불어권 국가들입니다. 은사주의와 신비주의가 만연되어 있고, 문맹률로 인해 성경읽기가 정착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목회자들이 **바른 신학**을 배우는 것은 성도들에게, 지체들에게 아주 필요한 일 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감사하게도 제가 공부했던 **제네바 성경신학교(IBG)**에서 2017년부터 아프리카 불어권 선교와 신학지도를 위해 세네갈에서 **2주간 집중교육**(기숙사에 들어가서 아침 8시부터 저녁 19시까지) 을 매년 여름마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함께하는 현지 목회자를 보내서 신학 연수를 하게 했습니다. 다카르의 무사 목사는 가정에 장례가 발생하여 교육을 내년으로 연기했지만, 카프린의 이브라이마 목사는 2주간 집중적인 교육을 받으며 신학적인 부분과 목회적인 부분에 큰 도전을 받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수준 높은 신학 교육과 사역에 대한 도전이 우리 현지 사역자들의 사역 현장으로 이어지길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12년 전 IBG에서 공부할 때 학장님이셨던 **Pierre Klipfel** 교수님이 이번 교육의 책임자로 오셔서 오랜 만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마갈 드 뚜바와 지체 심방

이 명절은 세네갈 이슬람 최대 종파인 **무리드파**의 지도자를 추모하기 위해 그가 묻혀있는 **'뚜바'**라는 도시로 세네갈 인구의 40%이상이 **순례**를 가는 기간입니다. 이 때만큼은 뚜바를 제외한 전국의 교통이 한적한 곳으로 바뀌곤 합니다. 이 기간에 저는 방학을 맞아 고향에 돌아가 있는 지체들을 심방하고 왔습니다. 먼저 다카르에서 108km 정도 떨어진 **찌야쟈이**에 가서 신입생 '**라띠흐**'의 가족을 만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 마을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가장 강력히 반대하던 분이셨는데, 마치 바울처럼 그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 기독교를 박해하던 인물에서 지금은 목사가 되어 그 마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심방을 마치고 나올 때 라띠흐의 어머니는 귀한 손님이 왔다고 키우던 닭을 잡아 선물로 주셨는데, 한국에서 치킨 선물을 받아보다가 살아있는 닭을 선물로 받은 적은 처음이라 감동이 더 컸습니다.

다음으로 40분 정도 더 들어간 '**조알 파디우트**'란 도시에 가서 디모데 훈련생인 **제르멘**과 그 가족을 만났습니다. 조알은 해안가 마을인데 전날 제르멘과 동생들이 직접 해루질을 해서 잡은 조개살을 넣어 만든 현지식 식사로 점심을 함께 하며 은혜의 교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체들의 현지 집을 심방한 것은 처음이었는데 너무 융숭한 대접을 받으며 큰 감동과 배움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사실 두 가정 다 목회자 가정이고, 형편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세네갈의 교회들이 너무나 가난하기에 라뜨흐의 아버지 **'와리은곰' 목사**는 평일에 농사를 짓고, 제르멘의 아버지 **'정'목사**는 간간히 바닷가에 가서 어업을 도와주며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도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돌보는 일, 말씀에 열정을 갖는 일에 온 힘을 쏟고 있었습니다.

가난함 중에도, 어려운 상황 속에도 오늘을 묵묵히 살아내고 있는 두 세네갈 목사님들과의 만남, 그리고 그런 부모님 아래에서 자란 귀한 대학생들 지체들을 양육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큰 선물임을 다시금 깨닫는 심방이었습니다.

앞으로 기회 있는대로 지체들의 고향집을 더 방문하여 지체들의 상황을 더 잘 이해하고, 캠퍼스 사역으로 함께 지역 사회를 도울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타소식




지난 1년 동안 **세네갈 문화**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이해하는데 힘을 쏟으며 기존의 사역자들과 지체들과의 **관계를 맺어가는데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8월부터 인수인계의 마지막인 재정까지 선임선교사로부터 완전히 인계를 받으면서 이제 세네갈 사역의 모든 것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재정을 넘겨받고보니 다카르 캠퍼스 공동체 센터와 카프린 열린 문 센터의 **운영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을 확인하며 지금까지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왔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한다고 간구하게 됩니다. 저희 가정이 두 곳의 센터를 잘 운영하며 그곳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가 선포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요즘 **무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2023-2024학기에 지체들과 함께 공부할 **성경공부 교재를 만드는 중**입니다. 불어사역 자료를 세네갈에서 구하기가 어려워 지난 여름 프랑스에 방문했을 때 기독서점에 가서 구입한 자료와 한국에서 들어오는 분들께 부탁을 하여 참고하여 교재를 만드는 중입니다.



10월 말(27-28일 예정)에는 사역자 가족 리트릿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카르의 **무사 목사 가정**(딸 1)과 카프린의 **이브라이마 목사 가정**(아들 3) 그리고 저희 가정이 함께 모여 **서로가 믿음의 한 가족임**을 기억하고 남편 사역자들 뿐 아니라 모두가 이 **비전에 '함께'하는 동역자임**을 되새기는 기회로, 무엇보다 가족들 간에 함께하는 기회가 없었기에 현지 사역자 가족들을 위한 위로의 자리를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마음같아서는 이날 만큼은 근사한 곳에 가서 식사도 제공하고 싶고, 아이들에게 신나는 추억을 마음 껏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그런 사역자 가족 리트릿이 되길 기도해 주십시오.

주아온설's 소식

저희 가족은 지난 여름 잠시 프랑스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은행 계좌를 닫는 목적과 불어 사역자료를 구매하는 일 그리고 동역자들과 제자들을 돌보는 목적이 있었는데, 은행 계좌는 중간에 저희 서류를 분실하는 일이 발생하고 다시 계좌 해지를 신청했지만 아직 (9월 20일 현재)계좌가 닫히지 않은 상태여서 잠잠히 기도하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0월 초에도 해지가 되지 않을 경우 다시 수수료가 빠져나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통장이 되면서 차후 문제가 되기에 그 전에 해지가 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김승미 선교사는 세 아이들을 키우며 해도 해도 끝이 나지 않는 집안 일과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온설이의 무게로 인해 최근 **손목 건초염**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세네갈에서 마땅히 갈 병원도 애매하고, 수유중이라 항생제를 먹을 수 없다하며 약국에서 구한 손목보호대만 차고 다만 손목의 통증이 속히 완쾌되길 기다리고 있는데, 건강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아와 아온이는 각각 5학년, 2학년으로 진급을 했습니다. 공부량이 많아졌고 그에 따라 언어에 대한 부담도 더 커졌기에 부모인 저희는 스스로 잘 이겨내길 기도해주며 집에서 응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언어의 부담으로 친구들에게 잘 다가가지 못하는 주아의 모습을 볼 때면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주아가 '내가 언제 그랬냐!'며 정색할 그날이 오겠지요!^^



2023년 10월 기도제목

1.새롭게 시작하는 2023-2024학기가 정상적으로 10월에 시작하고(아직 개강일이 공지가 안된 상태) 양육과 훈련이 다시 재개될 수 있도록
2.세네갈 JDM 캠퍼스만의 성경공부 교재를 잘 집필하고 사역자 가족 리트릿이 은혜가운데 진행되도록
3.다카르와 카프린 센터 운영에 함께할 동역자 및 협력교회들이 생기도록
4.프랑스 은행 계좌 해지가 해결되도록
5.김승미 선교사의 손목건초염이 완전히 낫고, 자녀들이 은혜 안에 건강히 자라도록

세네갈 다카르(Dakar)에서 2023년 9월 20일
김윤기, 김승미 선교사(주아온설) 드림

김윤기 선교사 221+77 549 4595
카톡ID jooane2013
김승미 선교사 221+77 474 4967
카톡ID freesmk69

집 연락처 221+33 823 4511
후원계좌 **국민은행 361402-04-166791 (김윤기)**

세네갈 캠퍼스 제자운동 밴드